

지구 온난화, 수온 상승으로

바다가 변하고 있다

정 환 석 | 미디어 다음 기자 media_hans@hanmail.net

얼마 전부터 바다 속이 변하고 있다. 아열대성 어류가 출현하는가 하면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 수온 상승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속을 태우며 더 나아가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물 반 해파리 반

얼마 전부터 바다 속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한류성 어류들의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들이 대신하고 있다거나. 어민들은 ‘물 반



해파리 반’이란 표현을 쓰며 해파리의 엄청난 번식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망이 파손되거나 어류들이 해파리의 독성에 죽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동해에서 처음으로 ‘보라문어’와 초대형 가오리가 잡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태평양 지역의 아열대성 어류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는 “지구온난화, 어획기술의 발달, 대

규모 남획으로 지난 50년간 대형 어류의 90% 이상이 사라져 멸종위기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양 생태계 변화속에서 동해는 한 중심에서 있다. 동해는 지난 30년 간 수온이 0.6도 상승해, 지난 60년 간의 수온 변화보다 훨씬 컸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동해에서 거의 사라졌다. 찬물에서 잘 자라는 참가리비 양식은 대량으로 폐사했다. 반면 남해에서만 양식되던 난류성 참굴 양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텅 비어버린 바다

속타는 어민

지난해 말, 기자는 강릉 사천항 르포를 떠났다. 사천항은 과거에 우럭, 광어, 돔, 대구 등 철따라 값비싼 어류가 잡히는 천혜의 항구였지만 어획량의 대폭 감소로 세밑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어민들은 “바다 속이 텅 비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 속은 육지에서 내려온 쓰레기와 진흙으로 엉망이라는 것. 사천항에서 많이 잡히던 ‘양미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이었다. 양미리는 바다 속 모래에서 서식하지만 진흙이 모래를 덮어 양미리가 서식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했다. 더욱이 양미리의 크기는 반으로 줄기까지 해 어민들의 근심은 더해가고 있었다.

어민들의 심정은 절박하다. 한 어민은 “자연재해로 시설물이 붕괴되면 정부가 복구해 준다지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누가 복구해 주느냐”며 “우리 식탁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안타까운 점은 해양 생태계 변화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 변화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에 빠진다고 경고하지만 국내 해양 연구에 투자되는 연구비는 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 지키기

이제 우리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수산물을 잡다보니 어종의 멸종 현상이나 조숙(크기가 작고 산란 시기가 빨라지는 것) 현상이 나타나 점점 바다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바다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싶다. 최근 정부는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 경북 울진에 ‘바다 목장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즉, 육지의 목장처럼 바다도 어류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바다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야 하

는 이유는 단순히 수산물 어획 감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결국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육지의 온도 상승으로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이 그것이다. 아열대성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1995년 23건, 2000년 2,462건이 발생했고, 세균성 이질은 95년 107건에서 2000년 4,142건으로 증가하기

도 했다.

마찬가지로 수산물 어획이 감소되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우리의 먹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먹거리의 변화는 산업적 변화 뿐 아니라 소화기 장애, 암 발생 등 생리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가 변하면 우리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